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뒷받침한다

- 특허청, 이차전지 업계와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6.7) -
- 이차전지 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심사지원 방안 검토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6월 7일(수) 14시 이인실 청장 주재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이차전지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엘엔에프, 대주전자재료, 더블유스코프코리아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이차전지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등의 심사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차전지 업계의 세계적(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촘촘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 면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빠른 특허 확보를 통하여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차전지 분야 심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사 사진은 행사 직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화학생명심사국	책임자	과 장	백영란 (042-481-5534)
	유기화학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신창훈 (042-481-5487)

붙임1

이차전지 업계 간담회 개최 계획

□ 개 요

- (일시) '23. 6. 7.(수) 14:00 ~ 15:00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제1회의실(강남구 역삼동)

□ 주요 참석자

- (특허청) 청장님, 화학생명심사국장, 관련 부서* 과장
*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등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상근부회장, 6개 회원사 IP 담당

구분	기업명	소속/직위	참석자	
배터리 3사 (대기업)	LG에너지솔루션	특허센터장(상무)	이한선	
	SK온	부사장	정민철	
	삼성SDI	법무팀 상무	하영기	
배터리 소재기업 (중견·중소기업)	양극재	엘엔에프	연구소장	박선홍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부사장	오성민
	분리막	더블유스코프코리아	팀장	박평용

< K&BIA 한국배터리산업협회 >

- 연혁 및 회원사 현황 :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011년 공식 출범하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제조업체와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업체를 포함하여 150여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음.

○ 임원단

- (협회장)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 '23.2.23, 제7대 협회장으로 취임

- (부회장단) 박진 삼성SDI 사업부장, 지동섭 SK온(주) 대표이사, 김준형 (주)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외 2명

- (일반임원) 최수안 (주)L&F 대표이사, 권우석 (주)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외 6명



< 협회장 : 권영수 >